

「후사(대를 이음)」는 필요없다 — 「봉축」을 부정하며, 천황제 폐지를 원합니다.

오늘 아키시노미야 부부에게 세번째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또한번 나라를 들어 「봉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가문」과 개인의 출산이 특별한 경사로써 축하받는 일에 대한 부당성은 제쳐두고라도, 지금까지의 「후사」 소동이라고할 정도의 이상한 사태에서, 「가문」을 위해 여성이 임신—출산하는 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미, 아들탄생을 주저없이 기대하는 성차별적인 언사가 일본중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천황가는, 세습이라는 「가문을 위한」 자식만들기 강제, 남계에 의한 혈통지배, 혼외자 이용과 배제라는 체계화된 성차별, 신분차별, 민족차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인신(살아있는 신)」으로서 서민을 전쟁에 앞세워 아시아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유린한 책임도 일절 지지 않을 뿐아니라, 또다시 전쟁국가로 매진하기 위한 「국민」 지배의 장치도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황제인 것입니다.

천황—황족을 찬미하는 일은 평화와 인권등을 우습게 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난 일에 대해 「가문을 잇는 것은 역시 아들」이라는 여성차별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져 오겠지요. 그리고 아키노미야 가문에 대한 처우개정(격을 높임)과 「공무」 확대 등, 천황제강화에 대한 움직임은 점점 더 강해 가겠지요. 「황실전범 개정」문제도 아들이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황위계승」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검토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천황가의 번영을 위해 돌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부자유만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뭔가 잘 못 됐다. 천황제는 필요없다. 「후사」는 필요없다.

우리는 「봉축」을 부정하며, 천황제 폐지를 원합니다.

2006년 9월 6일

「후사」는 필요없다 2006 실행위원회